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LITTLE UNIVERSE

가제 : 이 작은 우주에서

저자 : Heather Demetrios

출판사: Henry Holt

발행일: 2020년 4월 7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자매가 상실과 아픔을 마주하고 새롭게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매와 한나, 두 자매의 부모님은 모처럼 단둘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여행을 가있었다. 부모님이 집에 없는 동안 매가 집안의 대장이었다. 매는 어느 때처럼 자신이 그날 배운 놀라운 사실을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답이 없었다. 그때 할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뉴스를 틀어보니 말레이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자매는 연일 계속되는 뉴스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화면 속에 발만 덩그러니 하얀 천 밖으로 나온 시신들을 보면서 망연자실한다. 결국 엄마 아빠는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못하였다.

매와 한나, 곧 열여덟 살이 되는 둘은 이 커다란 우주에 둘만 남았다. 둘은 자매지만 너무나도 달랐다. 단순히 둘이 생물학적으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한나는 비록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은 딸이지만,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는 다 세 살 때 입양된 자매인 매에게로 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매의 재능에 늘 감탄사를 늘어놓았다. 매는 과학 포스터에 실린 사람들처럼 쿨한 스타처럼 보였다. 한나는 약물 중독에 낙태까지 한 경험이 있었다. 재활 교육과 상담도 받고 있었지만 한나는 계속되는 슬픔의 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엄마는 늘 온 우주가 한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했지만 한나가 느끼기엔 온 우주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을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매를 향하고 있었다. 한나는 늘 자신이 매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다른 둘은 부모님이 남기고 간 흔적을 정리하고 보스턴으로 이사 가기 위해 짐 정리를 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한나는 아빠의 노트북을 살펴보다가 아빠에게 온 메일함을 열어보게 된다. 거기에는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레베카 첸.' 레베카는 아빠의 연구 조교로 일하고 있던 여자였다. 한나는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호기심에 메일함을 열어보았다. 둘이 주고

받은 메일의 내용은 교수와 조교 사이에서 주고 받을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 아빠와 레베카는 오랜 연인 사이였고 두 자매가 고등학교를 마치면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하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 한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다. 보스턴에 가서도 약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곳에서 새로 알게 된 딜러를 만나, 학교에 있을 시간을 약에 취해 보내게 된다. 한나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레베카가 아빠에게 보낸 메일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 중에 걸리는 말이 하나 있었다. 레베카는 더 이상 아빠와의 관계를 비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한나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문득 깨닫게 된다. 레베카가 아빠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한편 매는 매일 우주비행사가 훈련하는 것처럼 살았다. 바로 눈 앞에 있을지 모르는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제 유일한 가족인 한나는 매일 자기 방에 침대에만 누워있었고 문을 걸어 잠근 채로 매가 들어갈 틈을 조금도 주지 않으려 했다. 매는 한나가 다시 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도 눈치 챘고, 학교에 오지 않는 한나 때문에 걱정이 됐다. 한나가 약에 취하지 않았을 때 다정하게 웃으며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춤을 추던 그런 모습은 이제 다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한나의 슬픔은 바다와 같았다. 한나의 슬픔은 파도였다. 반면에 매의 슬픔은 물 위를 동동 떠다니는 빙산이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수면 위로 보이는 빙산의 일각뿐이었다. 그녀의 슬픔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빙산이었다. 매는 휘청거리는 한나를 돕고 싶었다. 하지만 한나는 멀어져만 갔고 둘은 자주 다뤘다. 매는 한나의 남자친구 미카에게 연락해 한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지만 별로 도움을 얻지 못한다. 미카는 한나를 그저 내버려두라고 무신경하게 대답했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눈치였다. 그래도 한나가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미카와 예전처럼 함께 하는 게 나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매는 한나를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미카가 한나를 만나기 위해 보스턴에 온 날 한나는 미카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알면서도 자신을 캘리포니아로 돌려 보내려 했던 매에게 분노를 느낀다. 한나의 분노는 부모님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신을 약해빠진 문제아로 여기는 것에도 신물이 났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다. 마침내 한나는 아빠와 레베카의 비밀까지 다 폭로해버린다. 한나는 매일 밤낮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의문에 대해서도 털어놓는다. 왜 엄마의 시신이 홀로 있었을까? 아빠는 엄마를 구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매는 부모님의 비밀과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알아가면서 용서의 의미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운다. 이 작품은 매와 한나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며 이어진다. 상실과 고통을 겪은 자매들이 점차 세상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감동적인 소설이다.

#### <저자 소개>

헤더 데메트리오스는 수상 경력의 작가로 그녀의 작품은 7개 국가에 출간 되었다. (Heather Demetrios)의 작품 『 Something Real 』 『,I'll Meet You There 』 등은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제목 : WHEN YOU KNOW WHAT I KNOW  
가제 : 내가 알게 된 것을 당신도 알게 될 때  
저자 : Sonja K. Salter  
출판사: Little, B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20년 3월 24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문학, 9세 이상



**\*“비극 뒤에 찾아온 희망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 보다는 새롭고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 『The Summer of Owen 』의 작가 토니 애벗**

엄마는 토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다. 말을 하는 것이 곧 시작이니, 용기니 하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엄마는 앤디 삼촌처럼 어수룩하고 순진한 사람이 절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했다. 앤디 삼촌은 엄마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남동생이었다.

모든 비극은 방과 후 어느 날 벌어졌다. 토리는 그 날 이후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분노, 수치심, 슬픔과 같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헤어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삼촌이 지하실에 내려 갈 때 따라 내려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엄마 말대로 작년에 레슬링을 그만 두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삼촌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 나쁜 짓을 한 건 외삼촌인데 모든 후회와 죄책감의 화살은 토리를 향했다. 심지어 토리는 자신이 혹시 피해망상에 빠진 건 아닌지 스스로에 대한 의심마저 들었다. 일년 중 가장 기다렸던 할로윈 데이도 싫어졌다. 할로윈 데이에 다른 친구들처럼 의상을 챙겨 입기도 싫어졌다. 제일 친한 친구인 레아가 실망의 눈초리로 고개를 떨구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음악 소리를 듣는 것도 싫었다. 피아노 소리든 노래 소리든 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합창단도 그만 두고 싶었지만 엄마는 방과 후 토리를 돌봐 줄 믿을만한 사람도 없고 돈도 아껴야 하니 할머니나 삼촌에게 토리를 부탁하겠다고 했다. 엄마는 여전히 토리의 이야기를 믿지 않은 것이다. 토리는 합창단에 그냥 계속 나가기로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던 어느 날, 토리가 종일 이불 속에 숨어 있어도 모른척하던 엄마가 토리에게 다가와 말을 건다. 앤디 삼촌이 토리가 자신의 지갑에 손을 댄고 그 때문에 야단을 좀 쳤는데 지금 토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 지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엄마는 앤디 삼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다시 토리의 말을 듣고 싶어했다. 엄마는 이제서야 토리의 말을 믿어 주었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당장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리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고 다음 날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토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토리의 선생님에게 이 일을 이야기 했고 엄마가 토리는 그저 ‘당황한’ 상태일거라는 표현을 쓰자 토리는 더 깊은 상처를 받는다. 엄마는 현재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한 토리를 자꾸만 미래의 계획 속으로 몰아 세운다. 엄마는 토리가 이 부정적인 상황을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뭘 이겨내라는 건가? 믿고 들어주는 게 다가 아니었다. 같은 여자인 엄마조차 토리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 토리는 연이어 엄마에게 실망만 하게 된다. 그렇다고 엄마와 이혼하고 새 아이까지 얻은 아빠에게 연락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간 토리는 모든 선생님들이 자신을 힐끔힐끔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모든 선생님들이 토리의 일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곧 할머니도 이 일을 알게 되었고, 토리는 엄마가 전화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된다. 할머니 역시 앤디 삼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토리가 너무 어려서 오해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실망한 듯 보였다. 할머니가 자신과 토리 대신 남동생을 택한 거라 생각했다. 상담치료사 라일라 선생님은 토리에게 이 모든 것은 토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토리는 처음엔 그 말들을 흘려 들었지만, 그 말을 주문처럼 외는 라일라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문득 정말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토리와 엄마가 비밀스럽게 이 일로 분투하는 동안 여동생 테일러는 자신만 빼놓고 두 모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방문을 닫아놓고 며칠째 식사자리에도 함께 하지 않았다. 그 동안은 겨우 여덟 살 밖에 안된 테일러에게 자신의 끔찍한 비밀을 숨겨야 한다고 믿었던 토리는 테일러에게도 그 일에 대해 털어놓는다. 놀랍게도 테일러는 엄마보다도 훨씬 토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었다. 토리가 겪은 일은 토리의 집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 한 후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는데, 그 일을 알게 된 후 할머니와 동생의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 모든 것을 해내야 했다. 크리스마스도 오직 셋이서만 보내게 되었다. 조용한 크리스마스의 정적을 깬 건 아빠가 인사 차 전화를 걸었을 때 집안에 울려 퍼진 전화 벨소리 뿐이었다. 토리는 또 다른 죄책감을 떠안게 된다. 학교에서는 특별 강연이 열렸다. 누가 봐도 뻘했다. 토리의 일 때문에 열린 행사였고 토리는 수치심에 온몸이 붉어졌다. 게다가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토리에게 상담사의 명함을 건네는 걸 다른 아이들까지 보는 바람에 일은 더 복잡해졌다. 아빠까지 이 일을 알게 되고 양육권 이야기가 다시 오가자 토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말한 것까지 후회하게 된다. 토리의 고통은 앤디 삼촌 때문에 시작 되었지만 또 다른 더한 고통은 그 일 이후의 일들 때문이었다. 토리의 아픔과 고통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것일까?

치유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저자 역시 느리고도 긴 호흡을 가진 시 형식으로 이 글을 썼다.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계속 해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응원해주는 책이다.

#### <저자 소개>

소냐 K. 솔터 (Sonja K. Solter)는 대학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글쓰기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이 소설은 솔터의 데뷔작이다.